

연중 제 18주일

제1독서 : 전도 1, 2 ; 2, 21-23

제2독서 : 골로 3, 1-5. 9-11

복 음 : 루가 12, 13-21

숲 정 이

“여러분은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골로 3, 2)

강 론

돈이 좋은 일곱가지 이유

이성우 신부/화산동 성당

현대는 황금 만능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금전 만능 시대인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1. 멋진 옷, 좋은 집, 고급 차가 모두 내것이다.
2. 고급 스포츠, 레저, 환락도 즐길 수 있다.
3. 지위와 그에 따른 존경(?)과 인기, 명예도 얻을 수 있다.
4. 아름다운 예술품, 미인도 차지할 수 있다.
5. 잘하면 권력도 살 수 있다.
6. 감옥살이도 면할 수 있다.
7. 잘만 쓰면 건강도, 장수도 누릴 수 있다.

돈은 카드놀이에서의 올마이트(almight)와 같이 만능이요, 팔방미인이며, 왕처럼 위력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그 마력에 맞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은 멍이 들고, 영혼은 중태에 빠져 도저히 회생 불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건강한 영혼을 사고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은 돈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영역에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골로 3, 2)

소 리

박세리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요즘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박세리입니다. 낮설고 물설고 말설은 미국에 건너가 프로 골프의 세계에 뛰어들어 골프계의 신동이라는 타이거 우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우승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골프대회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열리는지 아니면 날마다 열리는지, 텔레비전만 켜다 하면 오늘은 박세리 선수가 몇 언더파에 몇 타를 기록하고 버디를 잡고 보기를 범하고 이글을 쳐서 성적이 어떻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정리 해고, 파업, 구조 조정, 퇴출, 실직 등이 어렵게 돌아가는 경제난과 불벌터위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미국에서 우승을 밥먹듯이 하는 박세리는 다시없는 위안이요 자랑입니다. 어쩌면 우리 나라가 소중히 여겨야 할 국보입니다.

더욱이 1달러가 아쉬운 판에 박세리가 벌어들이는 거액의 상금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집을 짓고 버스를 움직이고 집집마다 전기와 가스를 들어가게 하는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손에 거머쥐는 쥐꼬리만한 일당이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어 버린 땀금의 배추값입니다.

미국 골프대회에서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박세리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은 일터에서 쫓겨날까 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노동자들이요 이미 쫓겨나 거리를 헤매면서 기술을 익혀 재취업의 의지를 불태우는 실직자들이요 씨앗값도 건지지 못하고 배추밭을 갈아엎어 버렸지만 다시 쟁기를 드는 농민들입니다. (인)

숲정이 산책



“전세계 가톨릭 통계('96년말 현재)”

말씀의 향기

또하나의 기회

박 완 서/작가

일전에 한 다정한 친구로부터 제주도 풍란이라는 걸 선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걸 선물로 받는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거두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난을 죽인 일이 많기 때문에 걸으로는 좋아하는 척 했지만 실은 좀 뜨악했습니다. 화분에 심은 게 아니라 승승 구멍뚫린 돌에 간신히 붙어있는 거라 키울 일이 더욱 심난했습니다. 그러나 꼴 같지도 않은 게 흰 꽃망울이 너댓개나 달려있었고, 친구는 자꾸만 제 코 밑에 그걸 갖다대면서 말아보라고 했습니다. 향기를 잘 느낄 수 없었지만 좋은 향기를 맡은 것처럼 환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사람 코에는 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와 그렇지 못한 코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내 코가 난의 향기도 못맡는 코라는 걸 들키고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서재 한구석에 놓아둔지 며칠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별 볼 일 없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세상의 것 같지않은 그윽한 향기가 가득 고여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풍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코는 난의 향기를 못맡는 코는 아니었나 봅니다. 꽃도 숨을 쉬고, 낼숨때는 그 향기가 고조된다는 걸 어디선가 읽은 생각이 났습니다. 풍란의 참았던 향기가 소리 없이 폭발하면서 나를 불러냈구나, 나는 한밤중의 이 은밀한 만남에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둠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의 자유의사였을까, 부르심이였을까, 하고요. 나는 가끔 가다 그런 걸 심

각하게 궁금해 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주님을 영접한 게 확실한 사실인지 환각인지 의심스러워하는 마음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불확실하다해도, 주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님을 강력하게 느꼈을 때, 감각으로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서 느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쉬울때마다 주님, 주님 하고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을 무슨 자격증처럼 얻어 가진 것을 그닥 탐탁하게 여기시지않으시나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하늘나라냐? 파멸이냐? 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바로 현재에 재물을 쌓을 것인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을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을 것인가, 나보다 못한 이웃,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웃하고 나눌 것인가를 결정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혼자 먹는 도시락도 고스래를 하고 먹었으며, 나무의 열매도 날짐승 똥을 남겨놓는 고운 마음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만해지자 곧 아흔아홉냥 가진 이가 한냥 가진 이의 것을 빼앗는 욕심장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톨의 콩도 나누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IMF가 오히려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 까요.

(이번호부터는 서울교구 주보에 연재되는 작가 박완서씨와 최인호씨의 글을 실게 됩니다.)

중앙성당에서는 주일 낮미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신자분들을 위해서 늦은 8시 30분에 미사를 거행합니다. 늦더라도 주일미사에 참여합니다.

P.E.T 교육 : 9월 7일~11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8주간) 오후 1시~4시(12명 선착순)

신청 및 문의 : 교구 청소년 교육국 (0652) 85-0041

기장, 신고, 양도, 중여, 상수, 부가, 이익신청
-교구 개업시 세무신고 세무 무료상담-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세무사 이 환 영(아오스딩)
사무장 이 종 명(시 문)
☎ (0652) 254-3346
253-3346~8

숲정이 익스프레스
일반이사짐,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 (0652) 251-2024
211-4285
(휴) 011-223-3470
이 한 주(토마)

K-랜드 야외수영장 개장
(98. 7. 18~8. 20)
• 먹거리 부스(그린하우스, 애플우드)
• 수영장(300여평)
• 놀이기구(회전목마, 바이킹, 꼬마열차, 범퍼카 등)
윤병순(요셉), 김혜경(레지나)
금구 목우촌 건너편
☎ (0658) 42-0365

편안 눈 밝은 세상 —
정음 한독 안경원
안경사 이 수 엽(필레몬)
박 은 숙(레지나)
우체국 정문앞 이안과 1층
☎ (0681) 538-3333

◆ 궁금해요 ◆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는 것은 어떤 뜻이 있나요?
그리고 신자들이 가정에 성수를 가져다 놓는데 언제 어느 때 사용하는 거죠?

성수(聖水)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즉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쫓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를 손 끝에 묻혀 성호경을 긋고 성당에 들어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수를 찍어서 기도하거나 성수를 뿌리는 것은 자신이 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때 마귀를 쫓아버리고 마귀의 모든 행실과 모든 허례허식을 쫓아 버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성수를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경우에 축복하는 뜻으로 성수를 뿌리고, 혹은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우환이 들었을 때 악의 세력을 쫓는 뜻으로 성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수가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신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구·제 단체 소식 ◆

1. M.B.W 교구수련회 : 8월 3일(월)~5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2. 교구청직원 연례휴가 : 8월 3일(월)~8일(토)
3. 여성 62차 꾸르실료 : 8월 6일(목)~9일(주일), 천호 피정의 집
4. 푸른군대 일일피정 : 8월 6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5. 관상기도피정 : 8월 12일(수)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지도-김보록 신부 주최-전주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 협의회
6. 무주구천동 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무주리조트앞 왕성가든



1998년 성령의 해

나부터 새롭게-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

우리는 쇄신과 변화조차 타인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다. "나부터 새롭게"가 아니라 "너부터 새롭게"를 원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고, 옆집의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며, 우리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정부가 변화하기를 바라며, 또 교회가 변화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이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주교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첫 번째 길잡이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첫 순간에, 세수하고 식사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들기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성실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생활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희년 준비는 신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며, 일상기도의 생활화가 대희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한 「새 삶」상 수상자인 수원교구 대천동성당 마리아 형제의 딸대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자. "나부터 새롭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기간: 1년 4개월 29일 남았습니다.

금·은·보석·시계

칸 보 석

이 동 주(도비아)
박 영 실(헤레나)

서신2지구 상업은행 앞
☎ (0652) 75-0076

LG 에어컨 파격세일

15~26% 할인+6회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냉난방기 상담 환영

백제로 방상경시장 맞은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알베리오네 축제

젊은이 명상캠프

때 : 8월 10일(월)~12일(수)
대상 : 만 30세 이하의 미혼남녀
참가비 : 25,000원
신청 : 성바오로수도회
성바오로딸수도회
(02-984-1611)

요십이 (1304) 김병오



기간제 교사 초빙공고

과목 : 성심여중-국어 1명, 수학 2명, 성심여고-지리 1명, 자격 : 1964년 이후 출생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없는 자, 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원본, 호적등본, 교교생활기록부사본, 대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제출 : 성심여중 행정실 232-0134, 성심여고 행정실 232-2517, 마감 : 8. 10 오후 5시
학교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교사 구 함

자격 : 유아교육과 전공자
미혼, 경험자 환영
접수 : 8월 3일~7일
Tel. (0652) 71-1905

쥬정이 성지 어린이집

한국외방선교회 성소피정

일시 : 8월 14일(금) 오후 5시~8월 16일(일) 오후 1시, 장소 :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원(수원 가톨릭대학 옆), 신청 : 우편 또는 전화로 8월 9일까지 문의 : (02) 3673-2525 또는 (0331) 292-8490, 대상 : 해외선교 사제를 지망하는 고등학교생, 대학생, 미혼남성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주님! 땀흘린 노력에 축복해 주소서.

- 모임 : ① 레지오 꾸리아 - 교동미사 후
② 구역반장회 - 5일(수) 전 10시
③ 사목회 상임위원회 - 7일(금) 후 8시
④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성모회 - 9일(주일)
- 성화의 날 : 8월은 삼천 제2구역 성화의 달임.
- 첫영성체 교리 : 14일(금)까지, 매주 화~토요일
- 축! 꾸르실료 교육 : 6일(목)부터
안미화(모니카), 장광숙(아가페) 자매
-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중에 있음.
- 예비신자 교리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만 모집중임.
- 여름신앙 작문·한문교실 운영 : 매주 수, 목요일 후 5시~6시 30분
- 사무장 휴가 : 4일(화)~7일(금)까지
- 가정 성서 모임 : 매주 토요일 가정기도 및 대화모임 요망
- 구역반 모임 : 반모임과 형제회 모임에 충실하시길
- 교무금 봉헌 : 정성스런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 금주 전례 : 해설 - 박영춘, 독서 - 변대현(사도요한) 부부
봉헌 - 구기남(야누아리)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 이점열, 독서 - 기 관(베드로) 부부
봉헌 - 최지성(프란치스코)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346,200원 □ 교무금 : 2,930,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집시다!

- 주부반 - 화요일 전 10시 40분 ② 직장반 - 화요일 후 8시
③ 중·고생반 - 토요일 후 5시 40분
- 오늘 :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 금주 모임 : ① 요아킴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식
② 안나회 - 공식미사 후, 유아일
-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5일(수) 후 8시, 4회의식
② 제대회 - 6일(목) 전 10시, 유아일
③ 구역반장 모임 - 7일(금) 후 2시, 지하성당
④ 성모회, 자모회 - 8일(토) 전 10시
- 차주 모임 : 울프레야 - 후 7시 30분, 교육관
* 차주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 여성 62차 꾸르실료 : 6일(목)~9일(일), 천호, 이정희(세실리아)
- 전입가정 환영! : 서원배(베드로) T. 251-2616, 7구역 2반
박은주(글라라) T. 252-2089, 10구역 3반
손혜경(루피나) T. 251-4561, 비사벨A 106/502
- 부지런금 2차신립 감사! : 누게 - 6,690,000원
- 독서 : 금주(새벽) - 황대진, 오정순, 차주 - 광광술, 김하임
(공식) - 김재희, 손순임, 차주 - 이동주, 박영실
- 미사 안내 : 금주 - 찬상의 어머니Pr., 차주 - 착한견의 어머니Pr.
- 주차 안내 : 금주 - 바다의 별Pr., 차주 - 화해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 1,816,780원 □ 교무금 : 3,374,000원
- 2차헌금 : 706,55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최 공 일

◎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었습니다.

- 모임 :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테니스 - 오늘 후 3시, 해상학교
③ 등산 -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④ 본당 M.E - 13일(목), 저녁미사 후
⑤ 제대회 - 7일(금) 미사 후, 제대회원 전원 참석바람
⑥ 성모회, 성심회 - 매월 첫주 수요일 미사 후(5일)
- 여성 62차 꾸르실료 교육 : 6일~9일, 천호 피경의 집
정해순(소피아), 황성옥(가타리나), 김광숙(소피아)
- 오늘 : 성소후원회비 납부일 임니다.
- 봉성체 : 6일(목) * 신청하세요.
- 성체강복 : 6일(목) 저녁미사중에
- 금주 전례 : 해설 - 광명실, 독서 - 김혜임, 김용우
- 차주 전례 : 해설 - 김영순, 독서 - 박경화, 강준철
- 청소봉사 : 1, 2구역과 6구역 전제

□ 지난주 봉헌금 : 1,329,250원 □ 교무금 : 2,004,000원

우 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감 호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게 - 884,410단

- 금주 모임 : ① 천주의 모친Cu. - 전 9시
② 청년연합회 - 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7일(금) 10시미사 후
-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 성체강복 : 5일(수) 10시미사 후 4. 봉성체 : 7일(금)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에 협조해 주신 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 미납된 신축헌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3,800,000원(11세대)
- 미사시간 안내 : 평 일 : 월~금 전 6시, 화~목 후 7시 30분
수~금 전 10시
토요일특전 : 후 3시 - 어린이, 후 5시 - 중·고생,
후 7시 30분
- 주 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 여성 62차 꾸르실료 교육 : 6일~9일, 천호 피경의 집
이정희(보니타시아), 이흥연(젤마나), 서월순(안젤라)
- 차주 : 애령회, 성령기도회, 자모, 성모, 성심회, 울프레야,
여성분과회
- 금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전분기, 장선자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 - 강남주, 독서 - 김영길, 오순자
봉헌 - 강진상, 정병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041,570원 □ 교무금 : 4,601,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었습니다.

- 성전신축헌금 신립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 애령회, 울프레야 회의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 예비신자 교리 : ① 성모승천반 - 4일(화), 5일(수) 후 8시
② 성탄반 - 5일(수), 6일(목) 후 8시
- 성가연습 : 7일(금) 후 8시
- 봉성체 : 6일(목) * 사무실에 신청 바람.
- 성시간 : 7일(금) 후 7시 30분
- Pr. 단장 모임 : 7일(금) 후 8시
- 차주 모임 :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진회 - 낮미사 후
* 음반보급 - 광주교구 하당성당(목포)
- 청소 봉사 : 8일(토) - 자비의 모후Pr.
- 폐품 정리 : 8일(토) - 동정마리아Pr.
- 화단정리 : 8일(토) - 상아탑Pr.
- 금주 전례 : 새벽 - 광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경, 낮 - 최경순, 저녁 - 정인자
* 폐지수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 987,350원 □ 교무금 : 1,579,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14,910,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쉬고있는 교우들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금주 모임 : ① 성체봉사자 모임 - 4일(화) 전 12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 - 5일(수) 전 10시 30분
③ 사목회 - 7일(금) 후 8시
④ 예루살렘회 - 8일(토) 전 10시
- 차주 모임 : ① 안나, 요셉회 - 9일(일) 공식미사 후
② 성모회 - 12일(수) 전 11시
- 미사시간 변경안내 : 주일 - 새벽 6시, 전 10시(공식미사), 후 7시
월, 수, 목 - 새벽 6시, 화 - 후 7시, 금 - 전 10시
토 - 후 4시(어린이), 후 5시(중·고, 특전미사)
- 성체회 관상기도 피정 : 12일(수) 전 10시~후 5시
강사 - 김보록(바오로) 신부님
- 여성 62차 꾸르실료 : 6일(목)~9일(일), 천호 피경의 집
김숙자(수산나), 강성녀(안젤라)
* 많은 기도 바람.
- 이웃사랑 기금 : 19일부터 26일까지 1,682,000원
* 감사드립니다.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효동마을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301,400원 □ 교무금 : 3,203,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